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코리아팩2011 전시회 패키지 분야도 친환경 바람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11)'이 경연전람회와 월간 포장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은 이화수 국회의원,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식경제부 김준동 국장, 국토해양부 김한영 물류정책관, 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자들과 500여 일반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세계 23개국 600여 기업이 참가했으며 올해부터 '국제물류기기전 및 의약품전, 화장품전 등 6개 관련 전시회가 열려 2,000부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식'에서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패키징산업은 이제 상품의 보조수단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시장창출의 핵심동력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패키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미래물류기술포럼 창립 1주년 국제세미나', '2011 KOREA STAR 수상작 우수기술 세미나'를 비롯하여 '패키징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우수기술 발표', '포장기술세미나', '2011 1st 연세패키징 컨퍼런스'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에코패키징 SG 기술교류 세미나', '2011 International Green Packaging Symposium', '브랜드 패키징과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 등 전시회 기간 동안 30개 정도의 부대행사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국제포장기자재전'을 비롯해 '국제물류기기전 & 미래물류기술 국제 워크숍', '제약·화장품산업전', 등이 동시 개최되어 관람객들에게 연계 산업의 다양한 생산라인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전시 주최 측은 참가업체에게 필요한 맞춤형 바이어를 초청 지원하고 초청여건이 되지 못하는 참가기업을 위해 4개국의 구매력이 큰 해외구매사절단을 초청해 전시기간 중 약 5700만 불의 수출상담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액정보호 강화유리 '글라스킨'을 출품한 한진피앤씨 2. 차세대 측정기를 선보인 테스트코리아 3. 컴팩트한 식품 밀봉 포장기를 선보인 지엠피리드팩
4. 신제품 소형디지털인쇄기 BN-20을 선보인 디젠

한편, 포장전문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쇄 및 관련업계의 참여가 적지 않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인쇄부문의 주요 참가업체를 소개한다.

액정보호 강화유리 선보인 한진피앤씨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는 특허제품으로 대히트를 친바 있는 백타입 케이스를 이번 전시회에도 선보였다. 기존 선물세트에 비해 생산성 및 비용 절감효과가 크면서도 디자인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제품 진열시에는 저장 공간의 효율성, 판매시에는 편의성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진피앤씨는 이외에도 비닐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고 폐지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안전봉투,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돌가루를 사용해 만든 친환경종이(특허제품)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했다. 한편, 최근 그 사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핸드폰 액정화면용 보호필름에 비해 보호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방탄강화유리로 제조된 '글라스킨'을 출시해 시장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측정기 테스트 175, 176 내세운 테스트코리아

테스트코리아(지사장 이명식)는 이번 전시회에 '테스토 사베리스'를 선보였다. 테스트 사베리스는 무선 프로브, 이더넷 프로브, 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됐으며, 산업현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온도, 습도 측정 값, 안정적인 무선 데이터 전송을 하며, PC가 꺼져있어도 알람이 발생하고 발생내역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정전 시에도 데이터의 분실 염려가 없고, 패스워드 보호 기

능으로 보안 기능도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간편한 설정 기능과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차세대 측정기인 테스트 175, 176시리즈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컴팩트형 식품밀봉 포장기 공급, 지엠피리드팩

지엠피의 계열사인 지엠피리드팩(대표 김남평)은 4포지션 가압장치, 잔주름 방지장치, 근접센서 안전장치 등의 발명특허를 보유한 GMP 스마트 팩을 주력 제품으로 내놓았다. 이 제품은 스마트 디지털 3D 기술을 적용하여 터치 센서와 강력한 MCU를 탑재하여 열수축 작업시에도 잔주름이 없는 포장 가능하도록 해준다. 회사 측은 지엠피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신기술인 루테녹스히터를 적용하여 순간가열방식을 채택, 별도의 예열이 불필요하며 자동으로 온도가 제어될 뿐 아니라 용기의 크기, 규격별로 히터가 자동으로 변환된다고 전했다.

신제품 소형디지털인쇄기 BN-20 출품, 디젠

디젠(대표 이길헌)은 LEC-330 디지털프린터와 소형 디지털프린터인 BN-20을 선보였다.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LEC-330에 비해 소형인 BN-20은 샘플 작업이나 소량다품종 인쇄 등에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고객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다용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디젠은 가죽, 섬유, 실크를 비롯 철판, 알루미늄판 등 메탈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에 대한 디지털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